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배포일시	2013. 10. 13. (일)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419 호			
전화 02)784-2820, 팩스 02)788-0153 (문의 : 김상훈 보좌관 010-5024-6072)			

매년 1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한식재단

사업 수행 내용 검토해 보니 무능력·무책임한 업무 수행에 도덕적 해이
와 비리 의혹까지 총체적 난국

한식재단, 한식세계화사업 추진주체로 자격 있는지 의문

한식세계화사업과 한식재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舊 농림수산식품부, 이하 농
식품부)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심각한 문제들이 상당수 빠져 있어 알맹이 없
는 감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한식세계화사업의 추진주체로서 한식재단이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농식품부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부 문제 지적되었지만 김재원 의원
실 검토 결과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한식세계화사업과 한식재단에 대한 농식품부의 감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재
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이 한식세계화사업의 방만한 집행과 뉴욕 플래그쉽 한식
당 개설사업 예산 50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전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2년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었다.

그런데 한식세계화사업은 농식품부가 지도·감독하는 사업이라 농식품부가 감사를 한 것은 피감기관이 감사를 한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¹⁾을 거쳐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고, 2013년 2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추가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농식품부 감사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 지시 부적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민간보조사업자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용역계약 시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 부적정을 지적²⁾하였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출계획(예산편성) 작성 및 변경 승인 부적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이월 사용 지도·감독 부적정, 한식세계화추진단 운영 등 지도·감독 부적정, 협의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단기교육과정 운영업무 등 지도·감독 부적정, 한식조리 특성화 학교 지원사업 지도·감독 부적정, 대한민국 식품대전 개최 지원 부적정, 해외 한식 종합홍보사업 추진 부적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 공모 추진 및 내역사업 변경 부적정을 지적³⁾하여 일견 많은 내용을 밝혀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이 농식품부 및 한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두 번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1) 2012년 12월3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3년 2월 28일 본회의 의결

2)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세계화 감사결과 처분요구 처리결과

3) 출처 : 감사원,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상당수 용역이 수시로 계약기간·금액이 변경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

한식재단이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공개경쟁입찰로 체결한 계약 중 9건의 계약이 계약 체결 후 변경되었다. 금액 변경이 5건, 기간 변경이 7건이었고, 금액과 기간 변경이 중복된 계약이 3건이었다. 심지어 계약변경이 두 차례 이상 있었던 계약도 2건이나 있었다.

이 2건의 계약변경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주한 외국인 한식요리 경연대회 운영 및 홍보대행 용역(용역수행 : KP커뮤니케이션)”은 한 달 반짜리 용역계약에 계약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였고, 그것도 두 번 모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부랴부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⁴⁾.

“한식 스토리텔링 책자 외국어본 제작 용역(용역수행 : 스토리빈)”은 한식재단 용역계약 수시 변경의 결정판이다. 3개월짜리 계약에 계약을 세 차례나 변경하였는데, 1차는 금액, 2차는 기간, 3차는 금액과 기간을 동시에 변경하였다⁵⁾.

대충 엉터리로 계약하고 용역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기간과 금액을 변경한 한식재단 계약관리 부실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4) 원 계약 기간 2011.10.26~12.09

1차 변경일 2011.12.12 기간 변경 2011.10.26~2012.02.10

2차 변경일 2012.02.14 기간 변경 2011.10.26~2012.03.20

5) 원 계약 기간 2011.11.24~2012.02.29 금액 8천5백만원

1차 변경 금액 변경 9천5백만원

2차 변경 기간 변경 2011.11.24~2012.04.30

3차 변경 금액 변경 1억1천1백만원 기간 변경 2011.11.24~2012.05.30

용역 납품지체로 13억원 지체상금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어

한식재단의 계약관리 부실은 여러 차례 발생한 납품지체와 이에 대한 책임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지체상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한식재단이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개 용역이 계약만료일 이후 용역을 납품하였고, 그 책임으로 총 13억원의 지체상금⁶⁾이 발생하였으나 한식재단은 이를 한 톨도 받아내지 않았다.

“주요 거점도시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을 위한 연구용역(용역수행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계약만료일을 231일이나 지나 용역준공계를 제출해 지체상금이 1억5천7백만원이 발생⁷⁾하였고, “2011 해외 도시별 외식 시장조사 및 한식·한식당 진출전략 수립 용역 북중미권역(용역수행 : 삼정KPMG)” 역시 계약만료일을 220일이나 초과해 최종 보고서 인쇄물을 제출하여 지체상금이 1억7천2백만원이 발생⁸⁾하였다. 하지만 한식재단은 지체상금을 단돈 1원도 요구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0 하반기 한식세계화 해외 종합 홍보마케팅 대행 용역(용역수행 : 제일기획)”이다. 이 용역은 계약금액이 32억8천만원이나 되는 큰 규모의 용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도 없이 과업기간을 105일이나 연장해 주었다. 원 계약기간이 182일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계약변경도 없이 계약기간의 1/2이 넘는 기간을 임의로 연장해 준 점도, 과업기간 연장 신청을 계약만료일인

6) 지체상금율 0.25%, 지체상금=계약금액×지체상금율(0.25%)×지체일수

7) 계약만료일 2011.04.04, 용역준공계 제출일 2011.11.21

지체상금=271,815,000원(계약금액)×0.25%×231일

8) 계약만료일 2012.06.20, 최종보고서 인쇄물 제출일 2012.12.27

지체상금=313,500,000원(계약금액)×0.25%×220일

2011.06.09을 훨씬 지나 용역완료일 당일인 2011.09.23에 제일기획이 요청하였고 이를 한식재단이 당일 바로 승인해 준 점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처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식재단은 이로 인해 발생한 무려 8억6천만원의 지체상금⁹⁾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일기획에 요구하지 않았다.

편파적 기술평가로 특정 업체 선정 의혹

업체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에서도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편파적 평가를 한 흔적도 드러났다.

2010년 10월 “주요 거점도시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을 위한 연구용역(용역수행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세종대)”¹⁰⁾의 공개경쟁입찰 결과 세종대가 전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결과표를 살펴보면 세종대를 선정하기 위해 내부 평가위원들이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당시 기술평가위원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교수 및 전문가 4명, 내부 평가위원으로 농식품부 사무관 및 한식재단 직원 각 1명,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외부 평가위원 4명의 평가점수 합계를 보면, 우선협상대상자인 세종대가 288점(평균 72점), 2순위 업체가 290점(평균 72.5점)을 받았다. 2순위 업체가 오히려 2점이 앞선 결과이다. 반면 내부 평가위원 2명의 평가점수 합계는 세종대 156점

9) 계약기간 2010.12.10~2011.06.09

지체상금=3,280,500,000원(계약금액)×0.25%×105일

10) 계약일 2010.11.05, 계약금액 271,815,000원

(평균 72점), 2순위 업체 122점(평균 61점)으로 세종대가 무려 34점이 앞서는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2순위 업체의 외부와 내부 평가위원 평균 평가점수를 비교해 보면 72.5점 對 61점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내부 평가위원인 농식품부 사무관과 한식재단 직원이 모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상하고 편파적인 평가결과이다.

결국 가격평가에서 2순위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위원의 편파적 기술평가로 인해 평가점수 합계는 세종대가 더 높았고¹¹⁾ 세종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선정된 세종대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엉터리 업체였다는 것이다. 세종대는 계약만료일을 231일이나 지나서야 용역준공계를 제출해 용역을 마무리 했다. 이 시기는 2011년 11월21일로 용역의 목표였던 문제의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이 이미 취소된 시점이었다. 결국 잘못된 용역업체 선정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국민 혈세 2억7천만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다.

홈페이지 개편·온라인 마케팅에 11.4억원 투자, 결과는 홈페이지 日 방문자 수 1,862명에 불과

한식재단은 2011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한식세계화를 홍보·마케팅 하기 위해

11) 평가 총점(100점 만점)=기술평가 평균(80점 만점)+가격평가(20점 만점)

가격점수 : 세종대 17.5점(272,496,531원, 예가 대비 99.9%)

2순위 업체 20점(241,954,130원, 예가 대비 88.8%)

평가 총점 : 세종대 91.5점=74점(기술평가 평균)+17.5점(가격평가)

2순위 업체 88.7점=68.7점(기술평가 평균)+20점(가격평가)

11.4억원¹²⁾ 규모의 용역을 발주했다. 이 중 8억원은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사업” 예산을 위법 전용한 50억원 중 일부였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한식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시작한 이 사업의 결과는 처참했다.

日 방문자수를 15,000명으로 하겠다는 “한식세계화 사이트”는 日 방문자수가 6,037명에 그쳐 목표대비 40%에 그쳤다. 하지만 그마저도 온갖 이벤트를 통해 억지로 끌어올린 반짝 결과였다. 한식세계화 사이트의 日 방문자수는 2012년 1,941명으로 급감했고, 2013년에는 더욱 줄어 2011년 목표의 12% 수준인 1,86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의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한국어는 10,000명, 영어는 30,000명의 Fan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결과는 한국어 4,496명(45%), 영어 18,303명(61%)에 그쳤다.

트위터도 한국어 1,500명, 영어 10,000명, 일본어 5,000명의 Follower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11년에는 결과취합도 하지 않았다.¹³⁾

유튜브는 목표대비 달성수치가 민망할 정도의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어 1,000건, 영어 1,000건, 일본어 500건, 중국어 500건의 동영상 배포가 목표였는데 한국어는 58건(5.8%), 영어는 53건(5.3%)에 그쳤고 일본어, 중국어는 단 1건도 배포하지 않았다.

12) 홈페이지 개편 8.08억원, 온라인 채널 운영관리 및 종합마케팅 3.35억원

13) 2012년 한국어 14,541명, 영어 6,205명, 일본어 2,623명(출처 : 한식재단)

<2011년 한식세계화 온라인 채널별 홍보·마케팅 목표 및 결과>

채널	목표	결과(목표대비)
한식세계화 사이트 (日 방문자)	15,000명	11년 6,037명(40%) 12년 1,941명(13%) 13년 1,862명(12%)
페이스북 (Fan)	한국어 10,000명 영어 30,000명	한국어 4,496명(45%) 영어 18,303명(61%)
트위터 (Follower)	한국어 15,000명 영어 10,000명 일본어 5,000명	11년 제출자료 없음 12년 한국어 14,541명(97%) 영어 6,205명(62%) 일본어 2,623명(52%)
유튜브 (배포건수)	한국어 1,000건 영어 1,000건 일본어 500건 중국어 500건	한국어 58건(5.8%) 영어 53건(5.3%) 일본어 0건 중국어 0건

1인당 474만원짜리 다과체험, 270만원짜리 오찬, 95만원짜리 만찬 등
초호화판 파티에 13억원 쏟아 부어

한식재단 문제의 절정은 1인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행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치르는 모럴 헤저드이다. 한식재단은 2011년 11월부터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1년에 수차례씩 초호화판 파티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유럽에서 개최된 “한식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¹⁴⁾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출판기념회 및 다과 체험 행사로 진행되었다. 개별 행사에 사용된 금액만 보더라도 런던 8,987만원, 파리 9,483만원, 브뤼셀 4,769만원으로, 20명이 참석한 것으로 가정하면 1인당 소요비용이 무려 런던 449만원, 파리 474만원, 브뤼셀 238만원에 이른다.

14) 총 용역비 5억원, 용역수행 : 제일기획

2012년 1월 개최한 “마드리드 퓨전 한식 홍보 행사”¹⁵⁾는 132명을 초청 인당 95만원짜리 만찬을, 2013년 2월 개최한 “한식당 가이드북 출판기념 정월대보름과 풍속화 테마 미디어 이벤트”¹⁶⁾는 35명을 초청 인당 270만원짜리 오찬을, 2012년 10월 개최한 “뉴욕 푸드필름 페스티벌”¹⁷⁾에서는 300명을 초청 인당 49만원짜리 오찬을, 2013년 2월 개최한 “Delicious Collaboration of K-food & K-pop, Hansik tour in Beijing”¹⁸⁾은 278명을 초청해 인당 62만원짜리 디너파티를 개최했다.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에게 한식을 체험하게 하는 행사였다고는 하지만 몇몇 사람에게 식사 몇 번 대접하는데 무려 13억원을 쏟아 부은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친 것이다. 더군다나 2012년 10월 이후에 개최한 행사는 작년 국정감사와 농식품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청난 질타를 받는 와중에 벌어진 행사라 한식재단의 모럴 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한식세계화사업은 지난 5년간 약 1,000억원, 한식재단은 지난 4년간 약 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집행했다. 2014년 예산도 126억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식세계화사업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추진주체인 한식재단이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무능력, 무책임, 도덕적 해이는 실망의 수준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철저한 진상파악과 단호한 조치 없이 알맹이 없는 형식적 감사결과만 내놓은 감사원 역시 부실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찾

15) 총 용역비 3.9억원, 용역수행 : 대흥기획

16) 총 용역비 0.9억원

17) 총 용역비 1.5억원

18) 총 용역비 1.7억원

지 못하는 한식재단에게 한식세계화사업 추진주체의 역할을 계속 맡기는 것은 한식세계화사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면서 한식세계화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주체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를 할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한식세계화사업 및 한식재단 예산 집행내역¹⁹⁾>

단위 :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한식세계화사업	86	195	269	240	195	984
한식재단	-	101	118	79	99	398

<끝>

19) 출처 : 농식품부 제출자료